

전략연구 2018-00

#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정 종 관



## 연 구 요 약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이며 이상이기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적시하여 기념관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기념관의 비전은 내외 환경변화와 시대상황,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문화 정책과의 관계 하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비전은 2017년 9월 개관에 따라 운영체계가 정립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기념관으로 발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책무를 다하며, 해양환경안전과 자원 봉사의 거점센터로 자리매김하여, 자원봉사 교육훈련의 사회적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확산되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기념관의 미션을 구체화하는 전략목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도달해야 할 상위 비전과 미션에 입각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하위 세부 프로그램 목표라 할 수 있다. 기념관이 설립된 이후 지역에서 바른 위상으로 자리매김하여 뿌리내리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기념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해양환경안전 및 자원봉사 활동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 운영인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념관 조직은 시설운영팀, 해양환경안전팀, 자원봉사교육팀 등 세 팀으로 나눈다. 단계별 운영관리 로드맵의 준비를 위하여 기념관 운영체계는 2017년 9월 개관 이후 2019년까지 정착기, 2021까지 도약기, 2022년부터 안정기로 나누어 조직체계, 인력구성, 업무영역 확정, 운영재정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립한다.

1단계 정착기(2017. 9 ~ 2019. 12) 동안에는 기념관 건립 운영T/F팀을 중심으로 행정공무원 및 학예사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의 틀 구조를 갖춰나가는 단계로 총인원은 기존 3인 외에 학예사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체계와 함께 유류유출 해양재난 전문기념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단계이다. 이 기간에는 건립 과정 제기된 전시물의 내용, 동선결정, 방문객의 선호도평가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의사반영이 가능하도록 운영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매체와 구전 홍보를 추진한다.

2단계 정착기(2020. 1 ~ 2021. 12) 동안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줄여나가면서 태안군이나 지역 피해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단체, 가칭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전문기관에서 운영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속의 전문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정책관리 중심의 운영팀과 전시교육팀 중심으로 운영하되 내용적으로는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을 다룬다.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해설사의 해설과 교육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조직체계도 관장(4급 일반직 상당), 팀장(5급 일반직 또는 가급 전문경력직의 학예연구관)을 둔다. 총 인원은 9명으로 하고 점차 해양안전과 자원봉사 교육으로의 특화발전을 위해 재정확보 여건에 따라 시설운영, 해양환경안전, 자원봉사교육 등의 세 팀으로 정립해 나간다.

3단계 안정기 (2022. 1 ~ )에는 그 동안의 운영 시행착오에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유류유출사고 전문기념관으로의 성공모델 구축과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특화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한다. 2단계 정착기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직영 체계에서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의 반관반민 체계를 지나 항구적인 민간운영으로 나가도록 한다. 전체 운영요원의 조직인력은 세 팀에 대해 최대 12인 수준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시민주권 시대에 맞게 은퇴자나 자원활동가의 역량과 사회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지해 나간다. 이 기간에는 충남도의 행정 및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뿌리내린 민간 전문기념관이 되어 선진사례처럼 설립취지를 살린 지역 자원봉사자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민참여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영 주체별로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는 직접관리 방식과 민간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간접관리 방식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직접관리 방식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안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행정지원 장점이 있으나, 기관운영의 융통성이 부족한 단점이 거론된다. 이에 비해 간접관리 방식은 특수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운영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와 효율성, 운영의 자금인력 면에서 민간협력이 가능하나 재정확보의 난점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뒷받침 된다면 운영재원 확보에 큰 무리가 없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내용 차례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2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1) 연구내용 .....	4
2) 연구방법 .....	4
3. 기대효과 .....	5

### 제2장 선행연구 분석 및 방문객 설문조사

1. 지역발전 관련계획 .....	6
1)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	6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발전기본계획 .....	9
3)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운영 .....	10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련계획 .....	12
1) 서해 해양환경연구센터(가칭)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	12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13
3)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타당성 분석 .....	21
4) 가칭 전국 자원봉사교육관 건립방안 검토 연구 .....	22
5) 더반 해양박물관 사례 .....	24
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방문객 설문조사분석 .....	26
1)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	26
2) 분석결과 .....	28

## 제3장 발전 기본구상

1. 기본방향과 목표 .....	36
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발전 방향 .....	36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시설 여건 .....	38
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상과 도정 연계 .....	38
2. 운영 기본구상 .....	39
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방향 .....	39
2) 공공기관으로서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역할 .....	40
3. 중장기 비전, 목표, 추진과제 .....	42
1) 비전 .....	42
2) 목표 .....	43
3) 추진과제 .....	45

## 제4장 운영관리계획

1. 운영관리 기본방향 .....	47
1) 방문객 관점 운영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47
2) 기념관 전시물 현황 .....	48
2. 운영체계 정립 .....	49
1) 운영관리 로드맵 마련 .....	49
2) 운영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	51
3) 재난안전 및 자원봉사 활동 통합운영 .....	51
4) 진흥재단 설립 운영활성화 .....	53
3. 지역발전 역량 제고 .....	53
1) 지역자원 연계발전 방안 도출 .....	53
2) 지역 장소공간성의 역할 강화 .....	55
3) 지역산물 판매부스 마련 .....	56
4. 리더십 강화 .....	57

1) 박물관 및 교육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57
2) 지역 거점기관 인증 획득 .....	57
3)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	57
4) 운영 자립을 위한 재정확보 .....	58
5.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62
1) 수장품 보존센터 건립 .....	62
2)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62
3) 해양안전체험관 역할 강화 .....	63
4) 자원봉사교육관 역할 강화 .....	64
6. 주민중심 기념관 정립 .....	64
1) 지역주민 운영 참여 .....	64
2) 지역발전 기금 확보 .....	64
3) 시설 리모델링 참여 .....	65
 제5장 결론 .....	 66
 참고문헌 .....	 69

## 표 차례

〈표 1-1〉 한국의 해양자원분야 지속가능발전 세부지표 미흡평가 부문 .....	2
〈표 1-2〉 충남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	2
〈표 2-1〉 설문조사서 내용 .....	26
〈표 2-2〉 직업 .....	27
〈표 2-3〉 거주지 .....	27
〈표 2-4〉 연령 .....	28
〈표 2-5〉 편의시설 및 서비스 .....	30
〈표 2-6〉 전시 및 관람공간 .....	32
〈표 2-7〉 체험 및 학습프로그램설 .....	35
〈표 3-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총사업비 건의 내역 .....	37
〈표 4-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실 주제별 전시 내용 .....	49
〈표 4-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체험실 주제별 전시 내용 .....	49
〈표 4-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	52
〈표 4-4〉 연도별 기념관 운영 소요예산액(2017~21년) .....	59
〈표 4-5〉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주체별 장·단점 비교분석 .....	60
〈표 4-6〉 시민참여 추진 프로그램 .....	63



## 그림 차례

〈그림 2-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기본 방향 .....	7
〈그림 2-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기본 구상도 .....	8
〈그림 2-3〉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사업 구상도 .....	9
〈그림 2-4〉 안산 어촌민속박물관 전시실 배치도 .....	12
〈그림 2-5〉 발데즈박물관 및 25주년 배너 .....	14
〈그림 2-6〉 엑슨발데즈 박물관 전시물 .....	15
〈그림 2-7〉 프랫박물관 위치도 .....	16
〈그림 2-8〉 프랫박물관 자원봉사 감사 및 50주년 배너 .....	17
〈그림 2-9〉 프랫박물관 경내시설도 .....	18
〈그림 2-10〉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도입 기본방향 .....	20
〈그림 2-1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도입 컨셉과 주요 기능 .....	21
〈그림 2-12〉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의 역할과 기능 .....	22
〈그림 2-1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기능 및 시설 현황 분석 .....	23
〈그림 2-14〉 더반 해사박물관 경내 및 전시실 .....	25
〈그림 2-15〉 편익시설 및 서비스 .....	31
〈그림 2-16〉 전시 및 관람공간 .....	33
〈그림 2-17〉 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	34
〈그림 3-1〉 기념관 비전 미션 목표 .....	44
〈그림 4-1〉 기념관 중심 지역자원 연계도 .....	55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도정 수행의 핵심 지표로 인식하고 이에 준거하여 구체적인 행정 실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의 이행 차원에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 설정 등 국별 전략, 이행 및 모니터링체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SDGs이행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한다.

SDGs 관련 국내이행 평가 및 OECD회원국 이행사례를 보면 OECD는 회원국들의 SDGs 이행을 위한 지구중심체계(GPS) 역할을 자처하여, 이행초기 여건과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를 분석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여건분석 시범사업 결과 보건, 물은 약 70%, 가난, 식량, 에너지, 도시, 해양은 약 50% 수준으로 이미 목표지점에 접근하였다. 이에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의 착실한 이행전략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UN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DSN)는 독일 베텔스만재단과 공동으로 총 146개국 대상국별 초기현황을 평가 실시(2016년 7월)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총점 72.2점으로 146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여 아시아에서는 3위(일본 75.0, 8위; 싱가포르 74.6, 19위), OECD국가 중에서는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 인프라, 소비/생산은 이미 달성, 가난, 식량, 교육, 경제성장, 불평등 해소 등 4개 목표는 주의, 보건증진,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도시,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육상생태계, 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 등 9개 목표는 미흡으로 평가(총 77개 단위 지표 중에서는 14개 지표가 미흡)하였다.

우리나라의 SDGs 이행 현황은 별도의 통합적 이행체계 없이 기존 업무 분장 하에서 SDGs

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이행체계 구축과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SDGs 목표달성은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이 리더십,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표 1-1〉 한국의 해양자원분야 지속가능발전 세부지표 미흡평가 부문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값
해양건강성 지수(OHI-수질)(0-100)	46.7
해양건강성 지수(OHI-어업)(0-100)	2
완전보호해역 비율(%)	7.1

자료: SDSN과 독일 베텔스만재단의 한국의 초기 상황평가, 2016

## 2) 연구목적

충청남도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을 위한 세부지표 241개 항목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지표 100개 항목을 추려냈고, 2018년 지속가능발전 지표항목으로 설정 추진 중인 유류피해 극복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은 행정제도 분야에서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도정지표로 반영되어 있다. 유엔에서 2016년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17개 항목 가운데 SDG11의 지속가능한 도시, SDG14 해양생태계, SDG17 파트너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행정목표가 된다.

〈표 1-2〉 충남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구 분	내 용
지속가능 발전지표 (10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u>5대 분야(경제, 사회, 환경, 행정제도, 배경)</u> 지표를 토대로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여 상호 균형을 이룬 발전 방향 제시</li> <li>• 수행체계 : 연중,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 및 피드백</li> </ul>

이러한 기초 하에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남도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를 해양수산국 실무부서의 업무 도정성과 항목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등을 통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도정 성과지표에 반영(2018년 직무성과계약) 》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추진

2009년 환황해권 중심지로서 충청남도의 지역발전 및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 가운데 자연환경 부문 사업으로 지구환경보전 상징화사업으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이 계획, 추진되었다. 특히 2012년 충청남도청의 내포 이전으로 환황해권 발전 추진동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시책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과 등과 연계하여 연구과제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여건변화 및 정책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성과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공정사회 구현 등 복합적 정책영역 및 미래 정책수요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17년 9월 기념관 개관이후 관련된 정책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이해당사자간 소통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앞서 살펴봤듯이 외부·내부 환경여건을 진단하고 유사 기념관의 국내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운영목표를 정립하여 전략적인 정책개발 필요하게 되었다. 충청남도의 가치있는 해양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기념관의 장기적 발전상·미래상 제시를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계획 모델 수립이 요구된다.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정신을 보전하고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2017년 9월 개관함에 따라 기념관이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관련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비전, 목표, 전략 수립 관련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환황해권 거점 중심지로서 충청남도의 행정목표 달성에서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목표 정립
- 둘째, 기념관의 중장기적 발전상과 미래상 제시
- 셋째, 기념관 운영을 위한 비전 제시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정 목표를 통합·관리하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사업, 시책,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기 위해 세부 관련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설정하였다.

- 유사 시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체계화
- 해양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과 중장기 실행 로드맵 제시
-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자원봉사자의 전당 역할 정립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담아내기 위해 연구방법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수요와 방향 설정, 유사기관 운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 3. 기대효과

본 연구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계획 및 비전 수립 방법론을 개발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충청남도 기념관 운영관리의 바람직한 모델 정립을 제공한다.

둘째, 도정 성과지표에 반영, 도정 성과지표 관리시스템 구축, 기념관 종합발전 방향 정립을 제고한다.

셋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 활용을 기대한다.

- 공무원, 정책결정자 : 업무성과 및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
- 연구자, 전문가 : 충남리포트 발간, 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용
- 도민, 방문객 : 전시 교육 홍보의 거점으로서 정보 제공

##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검토

### 1. 지역발전 관련계획

#### 1)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2010. 12)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극복기념관을 설립하기 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지역종합계획으로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과 시설계획으로서 기념관 건립계획이 허베이 특별법(2008. 3 제정)에 근거하여 지역종합대응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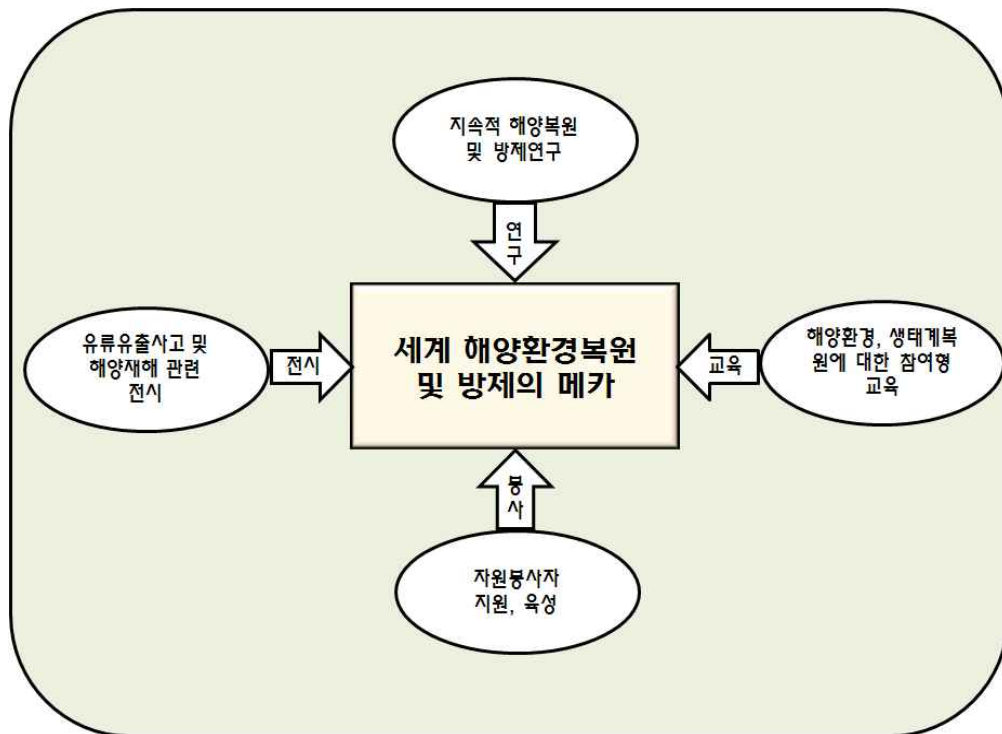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유류피해에 의한 지역경제의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경제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발전계획인데, 그 중 충남 서해안 국립공원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을 바탕으로 특화된 국제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천수만을 중심으로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안면도 등을 결합하여 레저휴양, 농업생명공학이 연계된 국제 관광 콤플렉스 조성
- 자연조건을 이용한 세계유일의 사계절 머드랜드, 테마섬, 유류재난 극복사례를 관광자원화한 지구환경보전 상징화사업 추진

지구환경보전 상징화사업은 유류재난의 극복 사례를 관광 및 자연환경보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구환경보전 상징화사업 추진이다. 여기에는 유류사고극복전시관, 해양연구시설, UNEP 국제환경연구센터 아시아본부 유치, 자원봉사자관, 해양공원관, 해양생태관, 리조트, 해양사계절 음식타워, 특산물판매장, 잔디광장 등 종합적인 모든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기념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은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시킨 형태로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환경재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해양오염방제, 복원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전시, 교

육, 학술적 활동으로 연계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 또는 지구환경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여, 기념관은 이색적이며 생동감 있는 전시 및 체험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2-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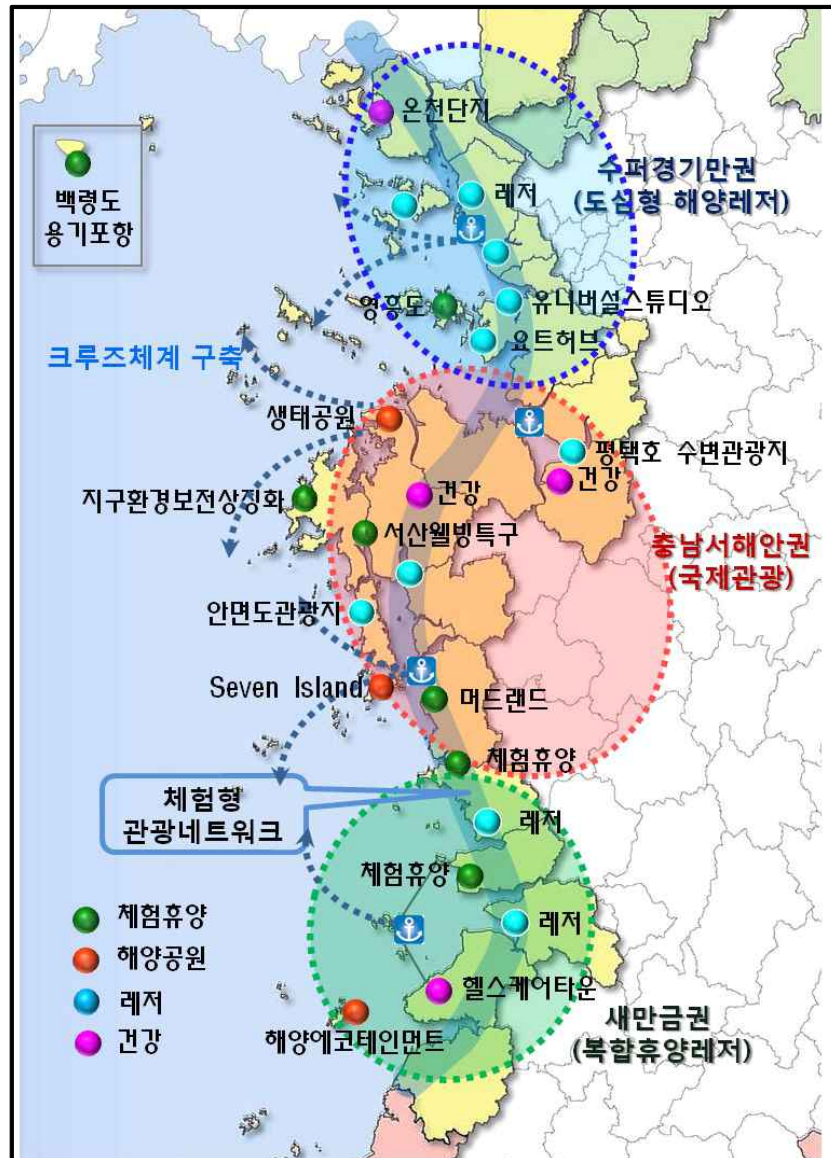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서해 해양환경연구센터(가칭)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2010. 3





〈그림 2-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기본 구상도

자료 : 충청남도, 서해 해양환경연구센터(가칭)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2010. 3



〈그림 2-3〉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사업 구상도  
 자료 : 국토해양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010. 12

##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발전기본계획(2015. 4)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하기로 한 장항국가산단의 대안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전시관 운영 목표로 자원관 설립 취지와 미래비전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해양생물자원

의 다양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관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실물표본과 연구 결과물 위주의 전시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확보·전시하여 대중의 관심과 이해 제고,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관 운영으로 문화·교육 중심기관 추구, 지역 관광 인프라와 함께 자원관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물 관광공원 조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시관 기본운영 방안으로 해양생물보존의 중요성,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물자원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전시·교육시설 기능으로 운영, 그 외 전시관의 특화된 기능은 크게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전시, 교육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 및 서비스 업무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시와 교육을 통해 관람객에게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과 가치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 전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시설관리, 대외협력 및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3)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운영

지역사회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 운영 사례로 안산어촌민속박물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7)을 들 수 있다. 대부도 탄도항에 위치한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안산 어촌지역의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민속과 어업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안산지역의 새로운 관광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개관하였다. 안산시가 경기도 어촌관광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안산시립어촌민속전시관으로 개관하여(2006. 3. 11),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2007. 2. 16),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운영 시행(2007. 6. 1), 안산어촌민속박물관으로 명칭변경(2008. 1. 22)과정을 거쳤다.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의 총면적은 7,500㎡이고 건물은 2,569㎡의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개관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매년 신정, 설날, 추석에 휴관한다.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안산지역의 어촌민속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연구·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시실은 안산의 역사와 생태환경, 어업문화, 어촌의 민속을 주제로 한 3개의 상설전시실과 어린이 상설체험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서해어종, 열대어종 등 2개의 대형수

족관과 민물고기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3D 입체영상실과 해양·공룡·민속 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도서자료를 비치한 도서자료실이 있다.

각 주제별로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의 제1전시실은 안산시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안산시 해양유적관련 유물과 공룡발자국 화석, 공룡알 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대부도 인근의 패총, 해양방어유적 등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선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변천을 살펴 볼 수 있으며, 공룡집단의 서식처였던 시화호의 생태환경 및 서해안의 물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2전시실에는 어업문화를 주제로 한 갯벌을 둘러싼 어촌의 삶과 어업에 관해 전시하고 있다.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해안 갯벌의 특징을 살펴보고, 갯벌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 생물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모습과 다양한 어업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제3전시실은 안산의 어촌문화를 재현한 공간으로, 바다와 함께 한 어민의 삶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바다라는 자연을 상대하는 어민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풍어제를 알아보고, 어촌의 어로요(漁撈謠)를 직접 들어보면서 어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환경생태교육 차원에서 어린이 상설체험전시실은 서해안의 생태환경과 어업문화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연 2회 이상의 기획전 특별전을 개최하며,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 연관체험시설로 유리공예마을 등이 있어 관련시설 상호간의 상승작용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4〉 안산 어촌민속박물관 전시실 배치도



##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련계획

### 1) 서해 해양환경연구센터(가칭)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2010. 3)

#### (1) 연구센터(유류사고 관련 연구시설)

이 기본구상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연구센터의 기능을 연구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복원연구, 해안오염 방제기술 및 장비 개발,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개발 연구, 해안오염 방제인력 양성, 해안오염방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연구센터를 설립 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전시 체험 학습 기능으로 유류유출사고 관련 자료 전시, 자원봉사자 및 해양환경 관련 자료 전시, 종합방재 및 해양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 전시관 건립기본구상(유류피해극복 관련 연구시설)

유류오염사고 관련 전시관 건립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충청남도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일치, 유류사고 관련 종합방재 체험관의 전시 학습효과 증진, 전시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 하여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관 건립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판단을 위한 분석결과, 공공사업 할인율(5.5%)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4.24%) 적용 시 현가화가치(NPV) 23,560~30,442백만원, 편익비용 비율(B/C) 은 1.89~2.10으로 계산하여 경제적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2012. 8)

### (1) 발데즈박물관(유류사고 관련 기념시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조성된 박물관이나 기념시설로는 엑손발데즈(Exxon Valdez)호 원유유출사고 내용을 소개하는 'Valdez Museum and Historical Archive(이하 발데즈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발데즈 박물관은 알래스카 발데즈시의 개척과정과 더불어 원유생산과 연관된 도시의 발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1967년 조성되었던 시설을 발데즈시의 지원과 기금을 통하여 유류사고 기념관으로 확장하였다.

박물관의 주요 전시내용은 발데즈의 역사와 더불어 1989년 기름유출사고 이후 20년의 역사



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여 발데즈시의 사회적 변화, 생태환경 변화, 사고이후 원유 처리방식의 변화의 순으로 전시테마가 마련되어 있다. 유류유출 사고 이후 민간단체가 박물관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박물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현 규모 약 1,200m<sup>2</sup>).



〈그림 2-5〉 발데즈박물관(Valdez Museum) 및 25주년 배너

2010년 발데즈박물관(Valdez Museum)은 재단장을 통해 대규모 전시회장을 보완하였는데, 박물관 직원은 보기 드문 유물전시, 현대적 그래픽 제작과 프리젠테이션 방법, 최신 자료로 보완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가진 전시 내용에 대해 개발자 및 이해 관계자와 함께 발데즈의 환경 비극이 주는 교훈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발데즈박물관에 전시된 Exxon Valdez호의 원유유출사고 관련 전시물은 약 1만5천점으로 기록문서(신문 스크랩, 사고 일지, 미국 전 지역에서 보낸 어린이들의 편지, 환경사진)와 더불어 선박 선체부분 모형이 전

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입장요금은 성인 기준 \$9이며 박물관 견학과 더불어 안내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후원금 확보를 위한 자체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운영비는 재화와 서비스 구입비를 포함하여 지출규모는 121만\$ 수준이며, 방문객수는 연평균 2만명인데 그 중에 학생이 3천명 정도를 차지한다. 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현장 내외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에는 발데즈시 지자체 대표를 중심으로 시설건립위원회(Build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자발적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 : 발데즈 박물관 홈페이지([www.valdezmuseum.org](http://www.valdezmuseum.org))

〈그림 2-6〉 엑슨발데즈 박물관 전시물

## (2) 프랫박물관(유류사고 인접지역 박물관)(Pratt Museum)

미국 알래스카 주 호머에 있는 지역 역사·자연 박물관(3779 Bartlett Street Homer, AK 99603)으로 1968년 설립되었다. 알래스카 케나이 반도(Kenai Peninsula)의 카체마크 만(Kachemak Bay)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알리기 위해 생긴 박물관이다. 카체마크 만은 국립 하구지역 연구 보존 시스템(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System)에 해당하는 23개 하구지역 중 가장 크다. 케나이 반도 유일한 박물관으로, 매년 3만여 명이 방문한다. 예술, 자연사, 원주민 문화, 도시 정주(定住) 장려 정책, 어업, 해양 생태계,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Exxon Valdez oil spill) 등 지역 관련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Museum)에서 빌려갈 정도로 잘 짜여진 전시를 자랑한다. 앵커리지 남쪽 320km 이격된 쿡







〈그림 2-8〉 프랫박물관 자원봉사 감사 및 50주년 배너



〈그림 2-9〉 프랫박물관 경내시설도

관련 사이트 <http://www.prattmuseum.org>

### (3) 사례로 본 시사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위한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난과 재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기념을 위한 전시시설로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가장 적절한 사례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나 전쟁기념관은 국난 극복사와 역사적 관점에서 국민 정신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과 의미가 매우 큰 시설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시설이나 교육공간으로서 수산과학관, 어촌민속전시관, 갯벌생태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해양문화나 생태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는 시설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건립하더라도 전시테마와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기존의 전시시설과 중복성은 띠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전시콘텐츠 마련에 제약과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기법은 물론 다양한 시뮬레이션기법을 통한 전시물 제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유류유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마련하고 여기에 생태교육과 관광활동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허브기능이 추가된다면 기념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사고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재난극복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것을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관광의 지역 거점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나아가 도시와 연안의 교류거점으로 발전되도록 도입기능을 수립하였다.





〈그림 2-10〉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도입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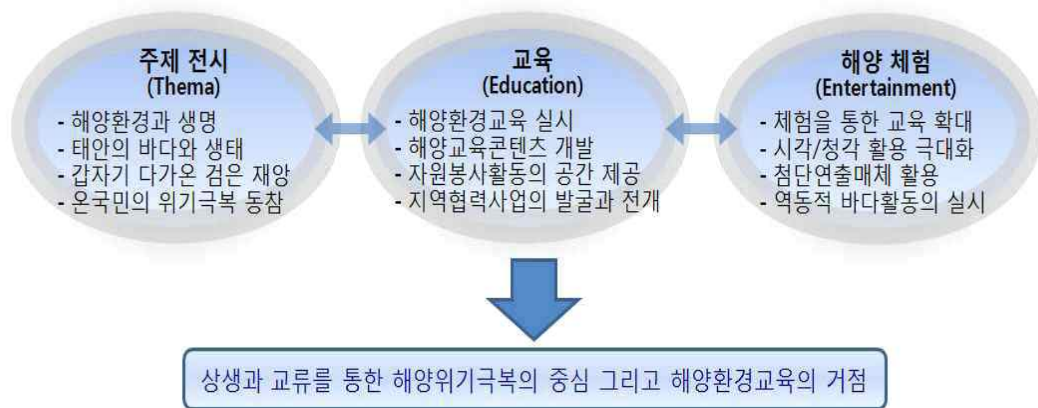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유류피해극복기념관(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12. 8

#### (4) 기념관 건립 추진전략

해양생태교육 및 홍보 중심의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유류피해 극복과정에 있어서 온 국민이 쏟은 관심과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노고를 기억하는 한편 유류피해의 심각성과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기념관을 겸한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연안을 따라서 다양한 해양 관련 시설(각 지역별 어촌민속전시관과 해양수산물과학관,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이미 조성되어 있거나 계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과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충남권에는 서천군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014년 개관하였는데, 생태자원 보존에 주된 목적이 있는 이들 시설과는 기능상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운영프로그램과 전시품목 등에 있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차별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념관은 해양환경교육은 물론 생태관광의 허브기능을 담당하여 지역내 다양한 해양체험시설과 연계 유도시키도록 설립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운영주체는 건립 배경·목적 부합성, 대표성, 상징성, 운영효과성, 정부의 지원과 국립기관과의 협업관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청남도가 직영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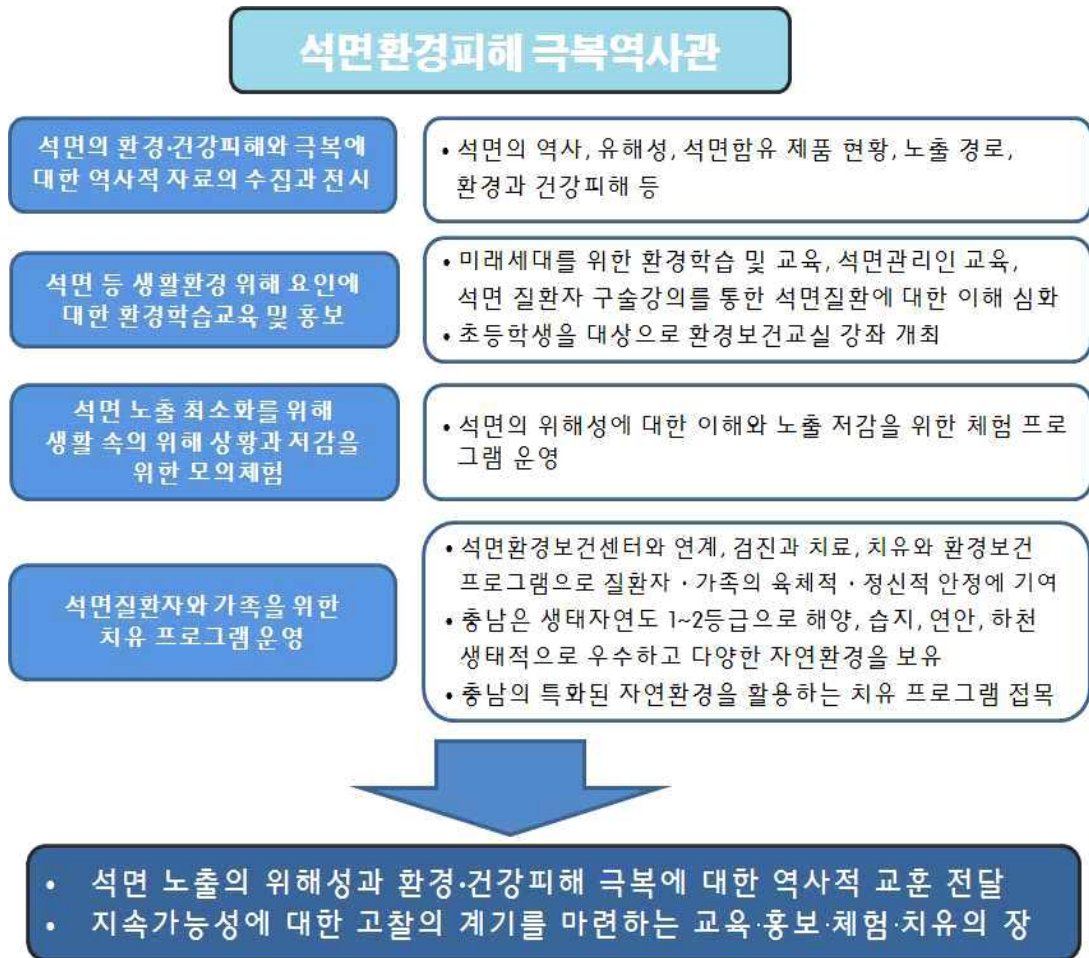
〈그림 2-1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도입 컨셉과 주요 기능

자료: 국토해양부, 유류피해극복기념관(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12. 8

### 3)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타당성 분석(2017. 8)

이 내용은 석면 노출의 위해성과 환경·건강피해 극복에 대한 사회역사적 교훈을 전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홍보·체험의 장 마련, 석면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등 사후건강관리를 통해 육체적·심리적 안정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 운영관련 재원조달 방안으로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은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관련 개별법이나 특별법 등에 관련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므로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은 기존 관련법에 시설 건립에 대한 규정 신설로 관련 근거 조항에 의거하여 (제1안)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와, (제2안) 건설비는 1:9 또는 1:8 수준으로 지원받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석면 문제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국가 주도적인 역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2〉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의 역할과 기능

자료: 명형남,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타당성 분석, 201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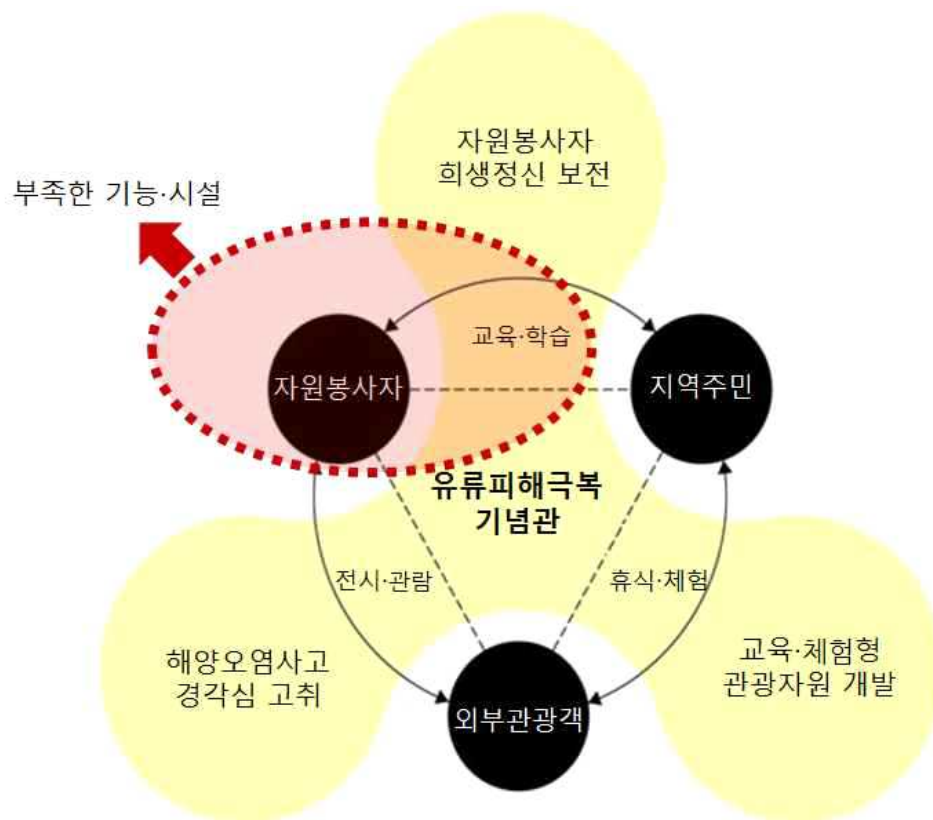
#### 4) 가칭 전국 자원봉사교육관 건립방안 검토 연구(2017. 6)

##### (1) 기능 및 도입시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해양오염사고 경각심 고취 및 자원봉사자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오염에 대한 교육 및 관광객 유치에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의 시설은 자원봉사 관련 활동 공간이 미흡한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시설의 특성 상 태안을 자원봉사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기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립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이용주체이자 목적계층을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외부 관광객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시와 교육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목적 계층은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체험과 관광 거점공간으로서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 관련 주된 중심 요소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외부관광객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역할분담과 기능배분을 나누어 운영방안을 설정하였다.



〈그림 2-1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기능 및 시설 현황 분석

자료: 임형빈, (가칭)전국 자원봉사교육관 건립방안 검토 연구, 2017. 6



## (2) 자원봉사교육관 운영·관리 및 재원조달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의 공동 운영·관리를 전제로 가칭)자원봉사교육관은 직접운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전액 국비를 활용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현재 운영 중인 “포괄보조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비와 도비, 군비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남도와 태안군이 일정 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하거나, 국비와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체 등의 모금을 통해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5) 더반 해양박물관

공식명칭은 나탈 해양 박물관[Natal Maritime Museum]으로 주소는 더반항구에 인접한 Bay End, Aliwal Street, Durban 이다. 입장료는 10란드(약 1000원)으로 휴관일은 성금요일, 크리스마스일이다.

선박구조 내부를 공개해 놓은 박물관으로 이곳에 공개된 배로는 소해정 SAS 더반, 견인선 (터그보트) 2척으로 우룬디, JR 모어 등이 있다. 그리고 순양함에는 함포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조작해볼 수 있다. 근대와 현대에 걸쳐 변화해 온 항해실을 시대별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조타실, 보일러실 등을 포함한 선내의 거의 모든 구역을 자유롭게 다니며 볼 수 있다.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이카다를 복원한 모형은 육상 전시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15세기 대항해 시대의 해양역사와 난파선, 재난구조작업, 해양안전신호와 해양탐사장비, 준설선, 포경선 외에 더반항의 확장역사, 선박안전, 해양오염방지, 해군 역사 등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남아프리카 연안 해역에는 대항해시대 이후 침몰한 선박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역사유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2-14〉 더반 해사박물관 경내 및 전시실

### 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방문객 설문조사분석

#### 1)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개관이후 관람객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만족도와 개선방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향후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의 이용성향의 현황분석과 향후 보완·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기념관 이용활성화 관리운영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3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327부를 통계패키지 SPSS 21.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방문성향, 기념관 방문 동기 및 만족도, 기념관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응답자 일반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47.4%(155명), ‘여자’가 52.5%(171)명이었으며, 연령은 50대가 22.4%(73명)로 가장 높고, 20대가 21.2%(69명), 40대가 18.4%(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충남’이 전체 응답자의 41.1%(13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24.8%(81명), ‘서울’ 15.0%(49명), ‘대전’ 5.8%(19명), 인천 4.6%(15명)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2.7%(74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직 16.6%(54명), 전문직 16.0%(52명), 기타 15.3%(50명), 주부 12.9%(4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설문조사서 내용

구분	기념관 방문 성향	기념관 방문 동기 및 만족도	기념관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일반사항
설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횟수</li> <li>- 방문목적</li> <li>- 정보경로</li> <li>- 동반자</li> <li>- 교통수단</li> <li>- 체류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전반적인 만족도</li> <li>- 기념관 1층 전시주제 만족도</li> <li>- 기념관 2층 전시주제 만족도</li> <li>- 옥상존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익시설 및 서비스</li> <li>- 전시 및 관람공간</li> <li>- 체험 및 학습프로그램</li> <li>- 기타 의견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거주지</li> <li>- 직업</li> </ul>

〈표 2-2〉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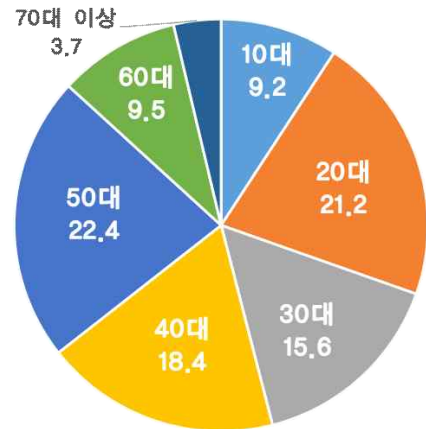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농림축산업	8	2.5	전문직	52	16.0
자영업	24	7.4	주부	42	12.9
사무직	54	16.6	학생	74	22.7
생산기술직	12	3.7	기타	50	15.3
판매서비스직	9	2.8	(미응답)	1	0.3
합계				326	100.0

〈표 2-3〉 거주지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	49	15.0	충남	134	41.1
부산	5	1.5	전북	1	0.3
대구	2	0.6	전남	1	0.3
인천	15	4.6	경북	1	0.3
광주	5	1.5	경남	1	0.3
대전	19	5.8	제주	1	0.3
세종	3	0.9	일본	1	0.3
경기	81	24.8	베트남	1	0.3
강원	3	0.9	(미응답)	1	0.3
충북	2	0.6	합계	326	100.0

〈표 2-4〉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10대	30	9.2
20대	69	21.2
30대	51	15.6
40대	60	18.4
50대	73	22.4
60대	31	9.5
70대 이상	12	3.7
합계	326	100.0



## 2) 분석결과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방문목적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43.9%(167명)가 ‘여행/휴양/휴식’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학습/체험활동’이 35.3%(13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습득 경로로는 ‘친구/친지등 주변사람’을 통한 정보습득이 31.9%(13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웹사이트’가 22.6%(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 및 관람 시설’의 경우 응답자의 89.5%가 ‘만족’이상에 응답하였다. 만족도 평점은 4.55점으로 ‘만족’ 이상을 선택한 방문객들의 연령대와 성별을 비교해보면, ‘10대’(96.7%)와 ‘40대’(96.7%)가 높게 나타났고, ‘남성’(89.6%)과 ‘여성’(89.4%)이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방문 만족도 종합 분석결과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방문 시 전시주제별 만족도를 매우불만족(1점)-불만족(2점)-보통(3점)-만족(4점)-매우만족(5점) 순의 리커트 척도(Lickert scale)로 응답하게 한 결과 방문객의 만족도 평점평균은 4.54점으로 ‘만족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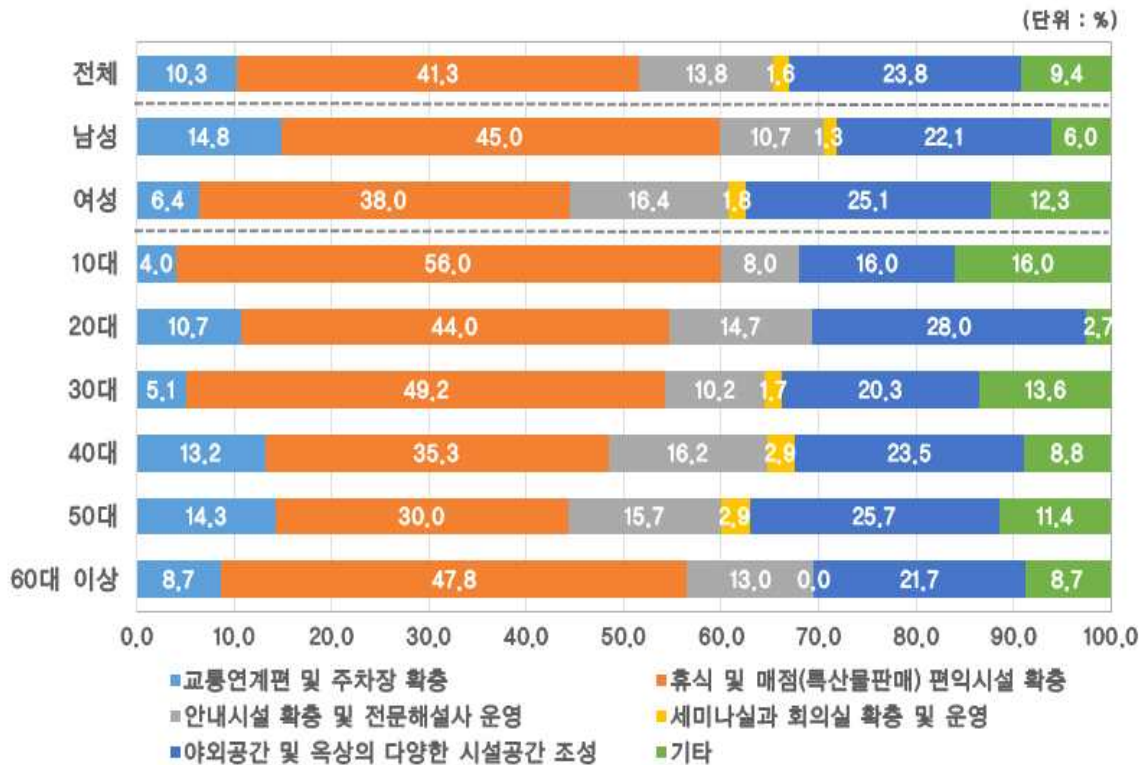
그 가운데 1층 전시실 ‘기적을 피워내다’는 평점 5점 만점 중 4.60점으로 전시주제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대다수의 전시공간에서 70% 이상의 응답자가 ‘매우만족’에 응답하였으나, ‘기념관 안내 및 해설’과 ‘옥상존3층 전망대 공간’의 경우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방문객이 각각 65.8%, 67.5%로 타 전시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 기념관의 개선 및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편익시설 및 서비스 부분에서는 '휴식 및 매점(특산물 판매) 편익시설 확충'이 41.3%(132명)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야외공간 및 옥상의 다양한 시설공간 조성'이 23.8%(76명), '안내시설 확충 및 전문 해설사 운영'이 13.8%(4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비 및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 성비 및 연령에서 '휴식 및 매점(특산물판매) 편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항목별 특성을 살펴보면 '교통연계편 및 주차장 확충'의 경우 '남성(14.8%)', '50대(14.3%)'가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안내시설 확충 및 전문 해설사 운영의 경우 '여성(16.4%)', '40대(16.2%)'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 '야외공간 및 옥상의 다양한 시설공간 조성'의 경우 '20대'가 28.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2-5〉 편익시설 및 서비스

구분		교통연계편 및 주차장 확충	휴식 및 매점(특 산물판매) 편익 시설 확충	안내시설 확 충 및 전문 해설사 영	세미나실과 회의실 확충 및 운영	야외공간 및 옥상에 시설 공간 조성	기타	합계
전체	빈도 (명)	33	132	44	5	76	30	320
	비율 (%)	10.3	41.3	13.8	1.6	23.8	9.4	100.0
남성	빈도 (명)	22	67	16	2	33	9	149
	비율 (%)	14.8	45.0	10.7	1.3	22.1	6.0	100.0
여성	빈도 (명)	11	65	28	3	43	21	171
	비율 (%)	6.4	38.0	16.4	1.8	25.1	12.3	100.0
10대	빈도 (명)	1	14	2	0	4	4	25
	비율 (%)	4.0	56.0	8.0	0.0	16.0	16.0	100.0
20대	빈도 (명)	8	33	11	0	21	2	75
	비율 (%)	10.7	44.0	14.7	0.0	28.0	2.7	100.0
30대	빈도 (명)	3	29	6	1	12	8	59
	비율 (%)	5.1	49.2	10.2	1.7	20.3	13.6	100.0
40대	빈도 (명)	9	24	11	2	16	6	68
	비율 (%)	13.2	35.3	16.2	2.9	23.5	8.8	100.0
50대	빈도 (명)	10	21	11	2	18	8	70
	비율 (%)	14.3	30.0	15.7	2.9	25.7	11.4	100.0
60대 이상	빈도 (명)	2	11	3	0	5	2	23
	비율 (%)	8.7	47.8	13.0	0.0	21.7	8.7	100.0



〈그림 2-15〉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전시 및 관람공간에서의 개선 및 발전방안은 ‘복도 및 유희공간의 방문객 참여전시 활용’이 25.4%(71명), ‘전시관람 공간의 새로운 콘텐츠 교체’가 20%(56명), ‘전시실의 다크투어리즘 스토리 추가’가 16.4%(46명)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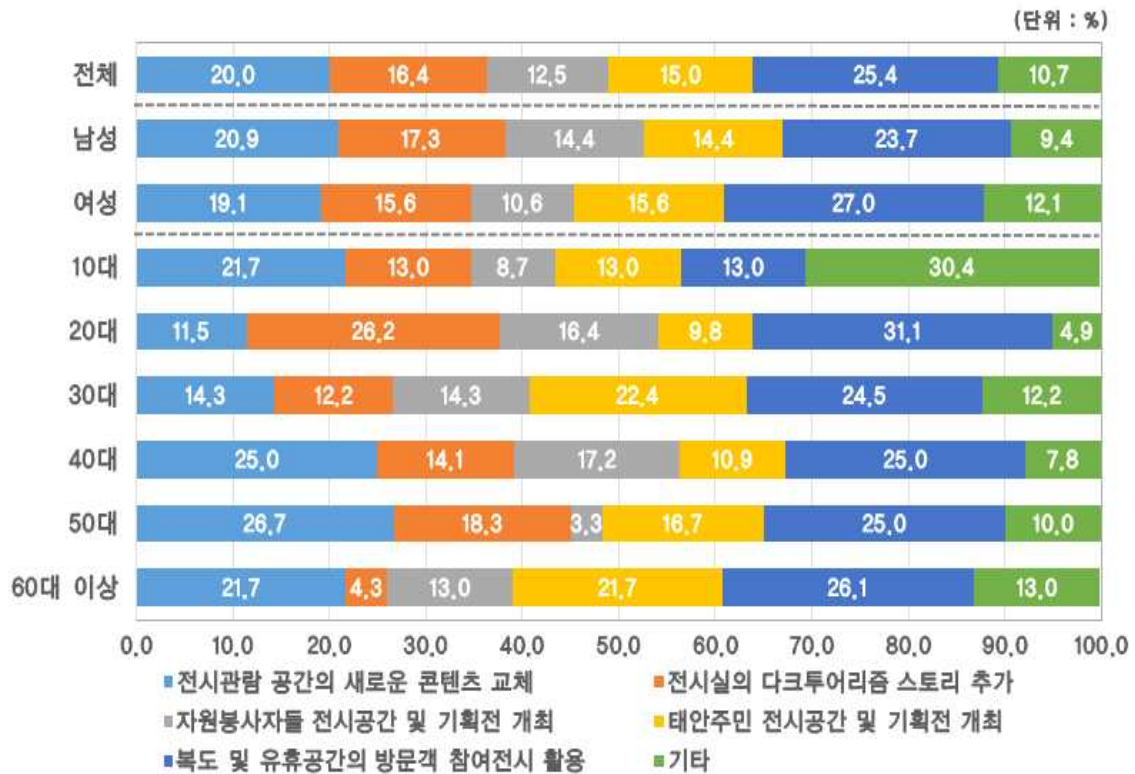
○ 성비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복도 및 유희공간의 방문객 참여 전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응답률은 전체 응답률과 동일하게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원봉사자들 전시 공간 및 기획전 개최’ 항목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응답이 약 3.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기타’ 항목의 응답률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31.1%)와 30대(24.5%), 40대(25.0%), 60대 이상(26.1%)의 경우 ‘복도 및 유희공간의 방문객 참여전시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25.0%), 50대(26.7%)의 경우 ‘전시관람 공간의 새로운 콘텐츠 교체’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 2-6〉 전시 및 관람공간

구분		전시관람 공 간 의 새로운 콘 텐츠 교체	전시실의 크 투어리 스토리 가	다 즈 추	자 원 봉 사 자 들 전 시 공 간 및 기 획 전 개최	태 안 주 민 전 시 공 간 및 기 획 전 개최	복도 및 유 휴 공 간 의 방문객 참 여전시 활 용	기타	합계
전체	빈도 (명)	56	46	35	42	71	30	280	
	비율 (%)	20.0	16.4	12.5	15.0	25.4	10.7	100.0	
남성	빈도 (명)	29	24	20	20	33	13	139	
	비율 (%)	20.9	17.3	14.4	14.4	23.7	9.4	100.0	
여성	빈도 (명)	27	22	15	22	38	17	141	
	비율 (%)	19.1	15.6	10.6	15.6	27.0	12.1	100.0	
10대	빈도 (명)	5	3	2	3	3	7	23	
	비율 (%)	21.7	13.0	8.7	13.0	13.0	30.4	100.0	
20대	빈도 (명)	7	16	10	6	19	3	61	
	비율 (%)	11.5	26.2	16.4	9.8	31.1	4.9	100.0	
30대	빈도 (명)	7	6	7	11	12	6	49	
	비율 (%)	14.3	12.2	14.3	22.4	24.5	12.2	100.0	
40대	빈도 (명)	16	9	11	7	16	5	64	
	비율 (%)	25.0	14.1	17.2	10.9	25.0	7.8	100.0	
50대	빈도 (명)	16	11	2	10	15	6	60	
	비율 (%)	26.7	18.3	3.3	16.7	25.0	10.0	100.0	
60대 이상	빈도 (명)	5	1	3	5	6	3	23	
	비율 (%)	21.7	4.3	13.0	21.7	26.1	1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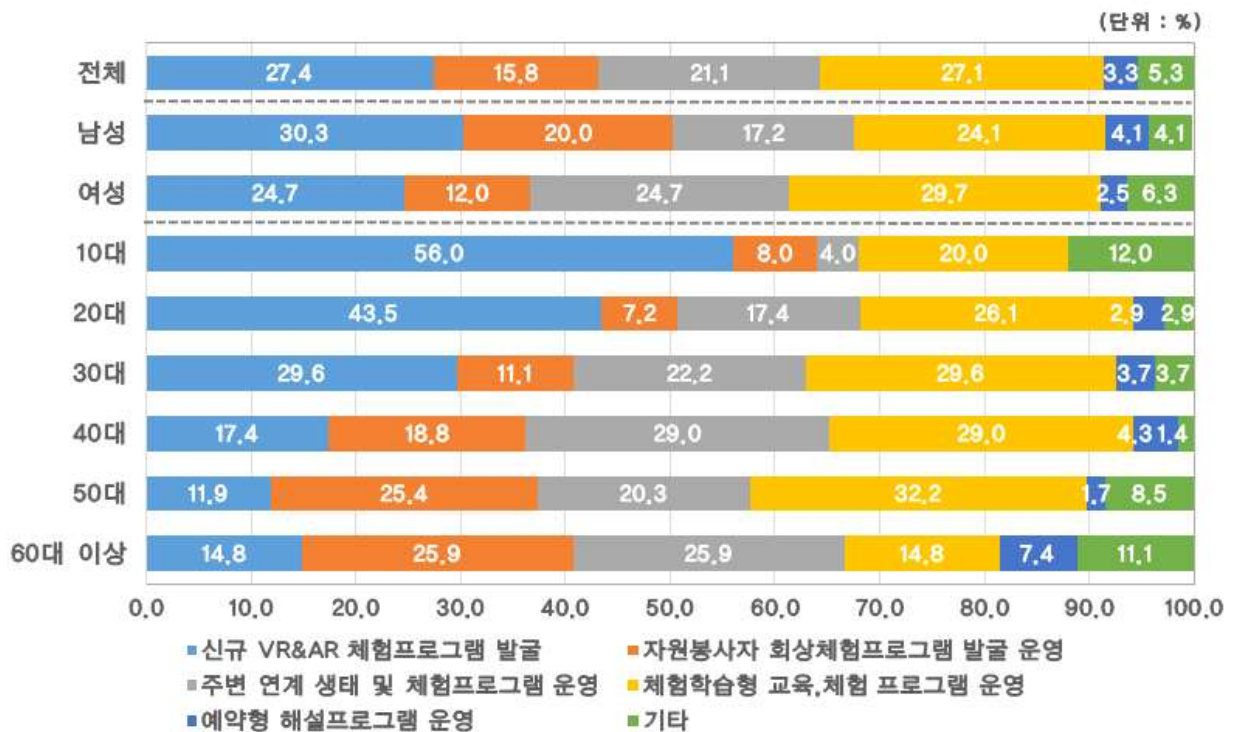


〈그림 2-16〉 전시 및 관람공간

체험 및 학습프로그램에서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서는 ‘신규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체험프로그램 발굴’이 27.4%(8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험학습형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27.1%(82명), ‘주변 연계 생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15.8%(4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비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신규 VR&AR 체험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체험학습형 교육, 체험프로그램’의 응답률이 높았다.
-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자원봉사자 회상체험프로그램 발굴운영’ 20.0%(29명), ‘주변 연계 생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17.2%(25명), ‘예약형 해설프로그램 운영’과 ‘기타’가 4.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의 경우 ‘주변 연계 생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4.7%(39명), 자원봉사자 회상 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12.0%(19명), ‘기타’ 6.3%(10명), ‘예약형 해설프로그램 운영’이 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10대(56.0%)와 20대(43.5%), 30대(29.6%)의 경우 '신규 VR&AR 체험프로그램 발굴'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29.6%)와 40대(29.0%), 50대(32.2%)의 경우 '체험학습형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25.9%)의 경우 '자원봉사자 회상체험프로그램 발굴운영'과 '주변 연계 생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2-17〉 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표 2-7〉 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구분		신 VR&AR 프로그램 개발	규 자 원 회 상 체 험 발 굴 운 영	주 변 연 계 체 험 프 로 그 램 운 영	체 험 및 형 교 육 프 로 그 램 운 영	예 약 형 해 설 프 로 그 램 운 영	기 타	합 계
전체	빈도 (명)	83	48	64	82	10	16	303
	비율 (%)	27.4	15.8	21.1	27.1	3.3	5.3	100.0
남성	빈도 (명)	44	29	25	35	6	6	145
	비율 (%)	30.3	20.0	17.2	24.1	4.1	4.1	100.0
여성	빈도 (명)	39	19	39	47	4	10	158
	비율 (%)	24.7	12.0	24.7	29.7	2.5	6.3	100.0
10대	빈도 (명)	14	2	1	5	0	3	25
	비율 (%)	56.0	8.0	4.0	20.0	0.0	12.0	100.0
20대	빈도 (명)	30	5	12	18	2	2	69
	비율 (%)	43.5	7.2	17.4	26.1	2.9	2.9	100.0
30대	빈도 (명)	16	6	12	16	2	2	54
	비율 (%)	29.6	11.1	22.2	29.6	3.7	3.7	100.0
40대	빈도 (명)	12	13	20	20	3	1	69
	비율 (%)	17.4	18.8	29.0	29.0	4.3	1.4	100.0
50대	빈도 (명)	7	15	12	19	1	5	59
	비율 (%)	11.9	25.4	20.3	32.2	1.7	8.5	100.0
60대 이상	빈도 (명)	4	7	7	4	2	3	27
	비율 (%)	14.8	25.9	25.9	14.8	7.4	11.1	100.0

## 제3장 발전 기본구상

### 1. 기본방향과 목표

#### 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발전 방향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개관이후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체계화하려면 시설 기본발전 방향과 여건을 먼저 검토한다. 자원봉사 및 해양환경분야의 인프라가 확충되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념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해양환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재난방재와 자원봉사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거점기능의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지역적 세계적 교류협력과 교육을 수행하는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로 10,761㎡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 개관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전시실과 방제체험실, 학습시설 등이 고루 갖춰져 있다.

충청남도과 태안군에서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를 겪으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환경 보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또한 서해안의 기적을 일으킨 123만 자원 봉사자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숭고한 뜻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어져야만 피해해안과 해상, 해저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연근해 어업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게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당위성을 알려줄 수 있게 된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2010년 조사)에서도 교육장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보다 적극적인 찬성을 보이는 응답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 900명 가운데 해양생태계 및 해양사고, 재난에 대한 교육적 장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9.8%에 이르렀다. 별로 필요 없다는 의견은 7.9%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1.7%,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0.6%에 불과했다. 기념관 건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 역시 해양환경의 소중함과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5.2%였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응답 역시 23.9%로 높게 나타났다. 당초 건립의 필요성에 제기된 것처럼 태안지역 주민들 또한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필요성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신축 및 시설운영에 대한 쟁점 사항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신축부지 및 예산편성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이 기념관은 원래 충청남도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가운데 지구환경 상징화 사업에 반영·추진된 일이었다. 충청남도가 사업계획 구상과 변경,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맡아 왔으나 업무협의 과정에서 기념관 건립 업무 전반을 태안군과 함께 폭넓게 협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태안군은 1차 업무협의에서 결정한 대로 11억원을 투자해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총 사업비 227억원 중에서 216억원의 국비 요청을 건의하였다. 국고 지원의 근거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에 의한 지원 사업이며, 2013년 국회에서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의뢰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표 3-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총사업비 건의 내역

구분		면적(㎡)	비용(백만원)	비고
실사설계비		-	1,000	
감리비		-	252	
부지매입비 (충남도·태안군)		20,000	1,148	지가 25천 원 보상배율 2.296
토목공사비		20,000	2,600	단가 0.15백만원/㎡
건축공사비		4,588	11,470	단가 2.5백만원/㎡
조경공사비		6,000	780	단가 0.15백만원/㎡
전시물 제작 설치비	상설전시실	1,300	4,550	단가 3.5백만원/㎡
총계			22,700	

자료 :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 통보」(타당성 심사과-153(2013.04.01)의 첨부자료

##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시설 여건

2010년 충남도에서 제시한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 기본 구상」에서 기념관의 방문객 수요는 2015년 현재 68만5천명, 2020년 69만2천명, 2025년 66만4천명, 2030년 62만4천명, 2034년 57만5천명이었다. 이같은 수요 추정은 전국관광총량×태안군 방문경험율×전시관 방문율 방법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추정 결과는 전국 시도별 응답자의 설문결과를 통해 산정된 것으로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응답자수가 50명 내외로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제시된 수요가 충청남도의 관광총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관광총량에 태안군 방문경험을 적용함으로써 과다 수요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쟁점이 지적됐다. 또한 입장료 징수 여부는 운영적 측면은 물론 기념관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에 따른 수요 영향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유류 피해극복기념관의 입장은 무료이며 기념관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기준은 「건축물 유사사례 데이터」 「건축계획각론」 「건축설계정보」 「건축설계기준집」 「정부청사시설기준」 등에 제시된 자료들을 적용했다.

기준단가 적용은 세부 전시실별 기능이 유사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중 기념관) 사례의 기준단가를 적용했으며, 기준단가 적용은 세부 전시실별 기능이 유사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중 기념관) 사례의 기준 단가와 「조달청 공사유형별 공사비」를 함께 검토했다.

## 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상과 도정 연계

2014년 8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104억 7,500만원)이 확정된 후 유류 피해극복기념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년여의 공사 끝에 2017년 9월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총 사업비 115억6,500만원이 투입된 기념관은 유류피해 극복의 역사적 상징성을 살린 명품기념관으로 완공되었다. 1층은 상설전시실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당시의 사진을 전시해 123만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기적의 순간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2층은 체험관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표착된 유류폐기물과 기름을 직접 제거하면서 피해극복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전남, 전북의 3道, 11개 시·군의 대표성 및 상징성에 부합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앞으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123만 자원봉사자의 성지 및 해양환경·재난안전 교육·체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참여형 전시콘텐츠를 발굴하고 테마형 문화행사를 개최해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서해안 발전계획 및 해양자원과 연계한 테마관광을 발굴해 유류피해 극복정신을 바탕으로 ‘海洋建道 충남’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 2. 운영 기본구상

### 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방향

충남도에서 수립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 기본구상으로는 “인간, 자연환경, 그리고 영원한 바다의 미래”를 주제로 서해바다의 재탄생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류유출사고의 경각심을 고양시키며, 자원봉사 활동의 아름다운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운영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기념관의 운영방향은 건립 운영 이후 세계적인 수준의 기념관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한다. 2022년까지의 중기발전계획에서는 비전을 “더 행복한 충남의 중심 기념관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으로 제시하고, 2025년까지의 장기발전 방향으로는 “21세기 세계적인 거점 기념관으로의 정립”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유류사고 발생과 복원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사고과정에 대한 기록, 방재관련 물품, 자발적 방제작업 참여자의 숫자로 나타낸 물리적 시설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사고기록과 방제작업 과정의 수장고 역할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과 자원봉사의 의미를 교육하고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유류사고와 해양재난 방재를 위한 협력과 협업을 통한 국제적 연계의 중심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 2) 공공기관으로서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역할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건립은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입각해서 중장기적으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으로 공공기념물로서의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시킨 형태로 구상하고, 지속적인 해양오염방제, 복원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전시, 교육, 학술적 활동으로 연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시설 건설과정에서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공공시설이지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다면 충남도의 재정여건을 더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흰 코끼리(white elephant)가 되어서는 기관의 운영에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비전, 가치, 기능,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공기념관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이 강화되고 그에 따르는 공공성의 책무가 더 한층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내용 체계화 과정과 방법은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해양환경 및 재난 관련 전시 연구 교육 등 다기능 복합시설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의 체계화를 위해 기념관 운영의 목표는 상위 운영체계화 목표와 하위 구체적 실행목표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상위목표 : 자원봉사의 전당
- 실행목표, 정책목표 : 해양환경, 재난방재관련 전시 연구 교육 실행의 거점 기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화는 비전수립 시점과 방법, 운영관리 방법 등 관리적 측면에서의 체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수립 및 발전방안 도출 과정에서 공공기념관으로서의 역할 강조와 함께 이를 토대로 활용 체계화 방안은 지속적인 활용과 관련 업무 정립 이후 → 전시 연구 교육 기능의 발전 → 성과평가로 피드백을 통해 기념

관 기능의 점진적 외연확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해양안전 및 자원봉사 교육 거점으로서의 임무완수를 위해 방재안전 수장품의 수집,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해 국내외 관련 기념관과 연계·협력하여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한다. 기념관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공·사립 기념관을 포함한 우리나라 박물관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이익의 실현과 공공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넓은 의미의 국가 정책으로서 박물관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국민정신 승리교육관으로서 자원봉사교육, 체험훈련, 해양안전 교육관 큐레이터 및 학생체험 연수 등 전국가적 교류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류사고 및 방제작업 과정에 대한 소장품 보존 및 활용 방향으로서는 가치와 의의 등에 전문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수집방침에 의거 소장품을 수집보존 상태 및 전시 계획을 감안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수장고 노후화를 개선하고 수장 공간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며, 소장품의 보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역 박물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보급하고, 소장 및 전시방법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존 철저와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념관이 당면한 현안 파악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위한 다양한 채널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21세기 사회문화 변화에 부응하는 국내외 박물관 진흥 정책방안을 추적하여 확인하고, 이를 위해 정책 개발을 통해 자생적인 정책연구 기능 강화와 운영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행정지침 마련 및 국제적 규범의 준수 등을 위한 조치들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을 선도함으로써 박물관 협의체 구축 및 운영에 리더십을 확보가 요구된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기념관은 국민의 사회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친숙한 체험교육 문화공간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서로 다른 관점,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에 대한 수용으로 세계를 향한 다양한 협력관계가 논의 교류하는 새로운 시대가치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열린 기념관으로서의 책임이 요구된다. 사회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4차 산업시대에 맞게 기념관의 사회적 기능은 소장품과 전시물의 양, 대형전시 보다는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교류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적 가치를 입증하고 성장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방문객이 전시물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교류를 통해 자신이 참여한 활동에 대해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증진을 통해, 인간 개개인의 발전과 개개인의 발전이 사회, 국가발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념관의 해양환경안전 체험교육은 학교 교육과 보완적 관계로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좀 더 용이하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개자로서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 3. 중장기 비전, 목표, 추진과제

#### 1) 비전

비전(vision,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이란 원래 사물과 事象에 대한 상상력, 직감력, 통찰력 등을 뜻하거나 미래상, 미래의 전망, 선견지명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 관점에서 사용될 경우 마음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바람직한 목표상을 지칭한다. 그래서 꿈 너머 그 꿈을 구체화한 또 하나의 꿈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목표상으로서의 미래 비전은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고도의 직관성(直觀性)과 생동감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이며 이상으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적시하여 기념관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기념의 비전은 내외 환경변화와 시대상황,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문화정책과의 관계 하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

#### □ 2025 중장기 비전

-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교육의 세계적 거점
- 도민과 국민을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 다양하고 창의적인 열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 비전의 의미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비전은 개관에 따라 운영체계가 정립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기념관으로 발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책무를 다하며,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의 거점센터로 자리매김하여, 자원봉사 교육훈련의 사회적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확산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 ☐ 미션

- 유류유출사고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및 연구
-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에 관한 국민체험 중심 종합교육기관
- 자원봉사 활동의 확산과 교육을 통한 국민의 시민참여 의식 향상
-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세계화 도모

- 미션의 확인 :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On earth as it is in heaven) 지상에서도 이루어지려면 기념관의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 해야 할 일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2) 목표

####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미래지향적 운영방향 설정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국내외 새로운 여건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끊임없이 변화 가능한 능동적이며 창의적 기념관으로 미래(future-oriented)를 지향함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간적으로 해양안전과 자원봉사 교육의 융합화의 역할을 선도하며 미래의 재난안전 분야 거점(foothold)을 지향함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립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체성 형성(identical integrity) 전략이 필요
- 재난극복과 자원봉사 현장의 세방화를 주도하는 교두보(glocal bridgehead)로서 지역사회 기여와 다양한 국제교류로 세계적 위상을 정립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정책목표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체계 정립
- 지역자산 활용으로 지역발전 역량 제고
- 지역대표 공공기념관으로서 리더십 강화
- 다양한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주민중심 기념관으로 정립 기반구축

- 정책목표의 확립 : 기념관의 미션을 구체화하는 전략목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도달해야 할 상위 비전과 미션에 입각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하위 세부 프로그램 목표라 할 수 있다. 기념관이 설립된 이후 지역에서 바른 위상으로 자리매김하여 뿌리내리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비 전	●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교육의 세계적 거점
미 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류유출사고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및 연구</li><li>●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에 관한 국민체험 중심 종합교육기관</li><li>● 자원봉사 활동의 확산과 교육을 통한 국민의 시민참여 의식 향상</li><li>●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세계화 도모</li></ul>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체계 정립</li><li>● 지역자산 활용으로 지역발전 역량 제고</li><li>● 지역대표 공공기념관으로서 리더십 강화</li><li>● 다양한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 운영</li><li>● 주민중심 기념관으로 정립 기반구축</li></ul>

〈그림 3-1〉 기념관 비전 미션 목표

### 3) 추진과제

#### ☐ 정책목표 1 : 운영체계 정립

- 과제 1. 단계별(정착기, 도약기, 안정기) 운영관리 로드맵 마련
- 과제 2. 운영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 과제 3. 재난안전 및 자원봉사 활동 통합운영
- 과제 4. 진흥재단 설립 운영 활성화

#### ☐ 정책목표 2 : 지역발전 역량제고

- 과제 1. 지역자원 연계발전 방안 도출
- 과제 2. 장소공간성의 역할 강화
- 과제 3. 지역특산물 관련 장소판촉 부스

#### ☐ 정책목표 3 : 리더십 강화

- 과제 1. 박물관 및 교육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과제 2. 지역 거점기관 인증 획득
- 과제 3.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 과제 4. 운영 자립을 위한 재정

#### ☐ 정책목표 4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과제 1. 수장품 보존센터 건립
- 과제 2.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과제 3. 해양안전체험관 역할 강화
- 과제 4. 자원봉사교육관 역할 강화

#### ☐ 정책목표 5 : 주민중심 기념관 정립

- 과제 1. 지역주민 운영 참여

○ 과제 2. 지역발전기금의 확보

○ 과제 3. 시설 리모델링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설정과 이행은 중장기 운영계획안 마련을 통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 2. 운영체제 정립

## 1) 운영관리 로드맵 마련

기념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해양환경안전 및 자원봉사 활동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 운영인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념관 조직은 시설운영팀, 해양환경안전팀, 자원봉사교육팀 등 세 팀으로 나눈다. 단계별 운영관리 로드맵의 준비를 위하여 기념관 운영체계는 2017년 9월 개관 이후 2019년까지 정착기, 2021까지 도약기, 2022년부터 안정기로 나누어 조직체계, 인력구성, 업무영역 확정, 운영재정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립한다.

1단계 정착기(2017. 9 ~ 2019. 12) 동안에는 기념관 건립 운영T/F팀을 중심으로 행정공무원 및 학예사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의 틀 구조를 갖추어나가는 단계로 총인원은 기존 3인 외에 학예사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체계와 함께 유류유출 해양재난 전문기념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나가는 단계이다. 이 기간에는 건립 과정 제기된 전시물의 내용, 동선결정, 방문객의 선호도평가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의사반영이 가능하도록 운영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매체와 구전 홍보를 추진한다.

2단계 정착기(2020. 1 ~ 2021. 12) 동안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줄여나가면서 태안군이나 지역 피해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단체, 가칭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전문기관에서 운영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속의 전문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정책관리 중심의 운영팀과 전시교육팀 중심으로 운영하되 내용적으로는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을 다룬다.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해설사의 해설과 교육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조직체계도 관장(4급 일반직 상당), 팀장(5급 일반직 또는 가급 전문경력직의 학예연구관)을 둔다. 총 인원은 9명으로 하고 점차 해양안전과 자원봉사 교육으로의 특화발전을 위해 재정확보 여건에 따라 시설운영, 해양환경안전, 자원봉사교육 등의 세 팀으로 정립해 나간다.

3단계 안정기 (2022. 1 ~ )에는 그 동안의 운영 시행착오에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유류유출사고 전문기념관으로의 성공모델 구축과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특화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한다. 2단계 정착기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직영 체계에서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의 반관반민 체계를 지나 항구적인 민간운영으로 나가도록 한다. 전체 운영요원

의 조직인력은 세 팀에 대해 최대 12인 수준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시민주권 시대에 맞게 은퇴자나 자원활동가의 역량과 사회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지해 나간다. 이 기간에는 충남도의 행정 및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뿌리내린 민간 전문기념관이 되어 선진사례처럼 설립취지를 살린 지역 자원봉사자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민참여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 2) 운영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기념관의 운영조직 구성원은 크게 공무원 중심 행정조직과 은퇴자 내지 자원봉사자 중심의 해설사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3단계에 걸친 조직운영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려면 구성원 관리자의 경영능력 외에 내부의 조직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직무 향상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해설사 및 전시 큐레이터의 직무는 해당분야에 대한 지속적 계발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고, 소수 정예 요원이 세부 분야를 다 다룰 수 없을 경우 관련 유관기관(박물관, 생물자원관, 생태관, 재난안전교육관 등)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류사고에 의한 영향은 충남도 외에 전남북 및 11시·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춘 곳으로 건립배경과 목적 부합성, 대표성, 상징성, 운영효과성, 정부의 지원과 국립기관과의 협업관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책조정회의 결과, 공익성이 큰 기념관이므로 성공적인 안착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구성원의 핵심능력에 좌우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한다.

## 3) 재난안전 및 자원봉사 활동 통합운영

기념관의 주요 기능으로 교육 체험 활동을 들 수 있다. 유류유출사고를 교훈삼아 사고예방, 체험교육의 장으로 정착하기 위해 해양환경·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 공간 확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승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서해지역 거점형 해양환경교육센터 및 전국 자원봉사교육원 유치를 위해 프로

그럼 운영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들의 사회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이 요구된다. 학교 교육 관련으로 전국 교육청(17개소) 협치를 통한 자유학기제 연계 현장체험 추진과 함께 태안군 소재 전시관을 아우르는 교육 허브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표 4-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충남 해양환경안전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학생반(유·초·중·고), 교사반, 사회인반(주민, 해설사 등)</li> <li>○ 분야 : 해양생물, 갯벌, 오염사고, 재난안전, 환경갈등 등 주제로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li> <li>○ 강사 : 해양환경 및 재난안전 관련분야 교수, 전문가, 지역내 환경전문가 등 초빙(전문 강사진 구성)</li> <li>* 월 1회 이상 목표로 ‘충남 환경혁신 아카데미’와 연계 운영</li> </ul>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내 각종 교육프로그램</li> <li>○ 인증기관 : 환경부 (관련법규 :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li> <li>○ 우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에 대하여 지정</li> </ul>
지역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관 : 관할 시·도지사</li> <li>○ 계획 : 기념관 인프라 활용 지역센터 운영 선제적 대응</li> <li>* 2020년까지 3개소(서해·동해·남해) 권역별 선정 및 국비지원 예정(해수부)</li> </ul>
환경교육 교류프로그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관 : 환경보전협회(환경부), 해양환경교육센터(해수부)</li> <li>○ 프로그램명 : “푸르미 이동환경 교실”, “해양환경 이동교실”, “찾아가는 강사단” 등 교육 교류 추진</li> <li>-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준별 눈높이 환경교육 진행</li> <li>- 물, 공기, 동식물 등 7개 주제 21개 프로그램 운영</li> </ul>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피해 극복과정의 애환, 감동 등 서해안의 기적 홍보</li> <li>○ 해양 생태환경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연수 지원</li> <li>○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장소 제공</li> <li>*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기업체 연수기관 등 협조요청</li> </ul>

#### 4) 진흥재단 설립 운영활성화

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에 입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념관 또는 박물관 사업 관련 진흥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허베이특별법(2008년 3월 제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운영재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진흥재단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는 토지·건물, 전시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교육·연구 및 시설구역에서의 매각과 임대 및 그 사후관리 및 부대시설 입주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관련기관의 활동지원 등 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연구개발과 시민인식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환경 관련 사회기금(social fund), 또는 대중의 관심을 동원하는 기금모금(crowd funding platform)을 통해 지역소재 주요 기업들의 사회공헌(CSR) 활동 및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주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사안 해결 재원 외에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에서 제기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금 조성을 위해 관내 기업별 참여 유도, 정기적 시민사회 교육을 통해 공공의 편익증진을 위해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3. 지역발전 역량 제고

#### 1) 지역자원 연계발전 방안 도출

기념관의 입지에 따라 유류유출사고 당시 방제작업 등 자원봉사에 참여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옴에 따라 이들에게 사고 당시의 방제작업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계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념관을 정보센터의 거점으로 육성(체험, 관광, 축제분야 등)하여 다양한 체험정보, 관광정보, 축제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면 지역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통해 장소판촉 효과도 가능하다.

태안군에서는 123만 자원봉사자의 구슬땀과 온정에 힘입어 유래 없이 빠르게 회복된 것을 기념하고, 태안 바다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길을 ‘솔향기길’이라는 이름으로 산책길을 개발하였다.

웰빙과 힐링이 문화의 한 줄기로 확산되면서 둘레길의 저변이 확대된 것도 솔향기길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었다. 이에 유류오염사고 당시 기름 제거작업을 위해 이용하던 방제로를 과거 군부대 해안경계순찰로, 오솔길, 임도 등과 연결해 솔향기길 생태 탐방로를 개설하였다. 솔향기길은 탁 트인 바다와 숲 속의 생태환경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둘레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모래사장이 아닌 해변 옆 숲길을 걷기 때문에 바다내음과 숲내음을 동시에 맡을 수 있다. 파도소리와 솔향기를 맡으며 걸으면서 오감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힐링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솔향기길 코스

- 제1코스 : 만대항 - 당봉전망대 - 여섬 -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총거리 : 10.2km, 소요시간 : 약 3시간 30분
- 제2코스 :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 가로림만 - 사목해수욕장 - 구멍바위 - 희망벽화  
총거리 : 9.9km, 소요시간 : 약 3시간
- 제3코스 : 가로림만 - 상여바위 - 돛단여바위 - 밤섬 - 소코뚜레 바위  
총거리 : 9.5km, 소요시간 : 약 3시간
- 제4코스 : 새섬 - 청산나루터 - 가로림만  
총거리 : 12.9km, 소요시간 : 약 3시간 30분
- 제5코스 : 선돌바위 - 냉천골  
총거리 : 8.9km, 소요시간 : 약 2시간 30분

천혜의 지역 생태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코스로 개발·육성하는 방안으로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추억의 방제 현장 프로그램은 시간 일정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반나절코스 : 기념관 ↔ 천리포 수목원 ↔ 태배전망대 둘레길(의항리)

\* 하루 코스 : 어은돌항 ↔ 만리포해수욕장 ↔ 기념관 ↔ 천리포 수목원 ↔ 신두리사구 ↔ 솔향기길

그리고 지역의 해양생태 특성과 해양생물을 형상화한 기념품 제작·판매 및 먹거리 개발을 병행한다면 지역의 이미지 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해양동물로 천연 기념물인 점박이물범과 웃는 얼굴을 가진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동물 마스코트 입양 및 지역 특산물인 꽃게, 우럭, 바지락, 갑오징어, 낙지 등으로 새로운 먹거리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림 4-1〉 기념관 중심 지역자원 연계도

## 2) 지역 장소공간성의 역할 강화

기념관은 지역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과 장소공간성에 대해 연결성 강화가 주요 임무가 된다. 이러한 비전으로 모든 사안들이 지역주민과 장소공간성이 상호연계된 공동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기념관 전시물 내용 및 관련 내용 줄거리는 지역을 이해하는 기본단위로 우리 상호간 소통의 방법이다. 박물관의 내용 줄거리는 개별, 예술, 과학, 문화의 발달을 통해 각 개인, 문화, 생태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탐사와 방문객 대화의 동적인 과정을 통해



잘 어우러진다.

기념관이나 박물관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약속이행을 촉진하고 공동공간에 대한 이해력을 강화함으로써 임무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과 자연공간간의 독특한 관계 형성이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다. 기념관이 위치함으로 해서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장소관측에 대한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장소관측은 지역 또는 지방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자연자원 및 생산물에 지역특성을 부여하여 그것을 매력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품으로 만드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다. 장소공간성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장소관측 사례,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축제, 타 지역의 장소관측 사례들을 살펴본 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태안군의 농어촌 지역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사람, 장소, 관측의 전략 측면에서 마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지역 장소관측 유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간특성 유형에 따라 농어촌지역 관측, 농어촌마을 관측, 농어촌지구 관측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소권역 단위로 동일 생활권이나 영농권의 상호연계 사업 또는 어촌계를 포함하는 지역 중심의 권역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 3) 지역산물 판매부스 마련

기념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일반적인 지역산물의 판매는 많은 장소공간이 필요함에 비해 접근성의 불리함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대도시권에서 기념관으로의 접근도로변에는 여름철에 과일이나 채소 등 농산물 판매가 주종이다. 이러한 부분은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연장 이후 교통여건이 개선되었을 때 지역에 미치는 농산물 판매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념관의 운영이 지역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의 상징물, 기념품, 자원봉사자의 정신을 반영하는 상징물 판매 부스 등을 만들어 연쇄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4. 리더십 강화

### 1) 박물관 및 교육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념관의 기능과 역할은 고객관점에서 전시물을 다루는 박물관과 방문객에 대한 교육기능을 통합한 운영체계 구축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전시 교육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대한 미래비전 홍보와 해양환경의 다양성과 가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관람객이 다시 찾고 싶은 국민교육 공간 창출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는 해양환경안전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부각시킨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전시 표본의 확보 및 고품격 관리를 위해 국내 유일의 해양안전사고 및 재난방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전시 표본 확보와 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내용과 자료 개발 및 국내·외 박물관, 관련 기관과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2) 지역 거점기관 인증 획득

기념관의 사회적 역할 및 지역사회에서의 기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견인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전 세계 박물관 협의회 네트워크 가입으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차원에서 일정 수준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교육, 정보제공, 인식증진 등 주요 역할에 대한 공인을 추진한다.

### 3)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기념관이 지역사회에서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고 커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장의 개발이 요구된다.

#### 4) 운영 자립을 위한 재정확보

기념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결국 운영비의 자발적 조달이 가능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기념관의 설립 이후 공공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장료가 없고 건립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념관의 단계별 운영관리 로드맵에서 2021년 이후 자체적인 재정 자립에 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조달 방안을 고려한다. 현재의 운영 인력 수준과 조직도를 고려하여 인력이 보강되고 사업영역이 확장될 경우 인건비, 공공시설 운영비, 시설물 보수비 분야가 전체의 77% 수준을 차지하지만 향후 교육 운영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다양한 내용을 추진할 경우 교육비 분야의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운영 자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념관의 성격에 맞게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타당하나, 공공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충남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지역민의 사회적 경제 성격을 강조하는 피해민 단체인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공기업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에도 재정 부족분을 메워주는 형태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도비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재정조달 면에서는 현재의 도 직접 운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유류유출 사고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자원봉사 정신을 이끌어 냈듯이 기념관 운영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태안군, 또는 사회적 경제조합 운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경제조합은 현재 자체 기금 규모가 143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사무실 임차비 지출 등 운영경비의 비중을 줄이고 실질 사업비의 투입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실적 가능한 대안으로 충남도와 사회적 경제조합 간의 운영협약을 통해 피해민 복리증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다.

〈표 4-4〉 연도별 기념관 운영 소요예산액(2017~21년)

구 분	계정항목	연도별 추정액(백만원)					비 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382	691	712	870	878	
■ 인건비	인건비 (101-01)	250	255	260	265	270	·일반직 4명
■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1-01)	14	14	14	14	14	·리플렛
■ 위탁관리 용역 (아웃소싱)	공공운영비 (201-02)	104	202	205	208	211	·청소/경비/시설물
■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1-02)	-	50	50	200	200	·전시실 유지보수 *2020년부터 리모델링
■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201-02)	14	14	14	14	14	·공공요금, 제세
■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1-03)	-	36	36	36	36	·프로그램 홍보물, 체험교구, 강사료
■ 해설사 보상금	기타보상금 (301-11)	-	65	78	78	78	·해설사 5명
■ 기획전시 운영	행사운영비 (201-03)	-	15	15	15	15	·차량임차, 소책자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40	40	40	40	·모형제작, 전시공사

〈표 4-5〉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주체별 장·단점 비교분석

### ① 도 직영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 설계, 시공 등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한 연속성 확보</li> <li>○ 유류피해지역 3도 11시·군을 아우르는 대표성 및 상징성 부합</li> <li>○ 지나친 흥행과 가동률 등 실적 위주로 부터 벗어나 기념관의 건립 취지에 맞는 전시운영 용이</li> <li>○ 운영의 주체로서의 공적 신뢰도 확보</li> <li>○ 범국가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국가기관 등 MOU, 업무 협조 시 유리</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중인 도 및 시·군 업무기능 재정립과 배치</li> <li>○ 원거리 위치, 별도조직·사무 공간 운영비 부담 등 효율성 저하 (기피부서 전락우려)</li> <li>○ 공적 사업비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li> <li>○ 의사결정이 늦고, 마케팅 취약 등 민간과 경쟁 시 불리</li> <li>○ 5년마다 공유재산 사용승인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발생 (도지사 신청→ 태안군수 승인)</li> </ul>

### ② 태안군(이관)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및 시·군 업무기능 재정립과 부합(기념관 태안군 소재)</li> <li>○ 지역특성을 반영한 타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유리(현장성, 신속성 등)</li> <li>○ 既 패총박물관, 신두리사구 등 운영 노하우가 집적돼 내실화 가능</li> <li>○ 주라기 박물관 등 민간 전시관과 선의 경쟁구도, 동반성장 잠재</li> <li>○ 군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 성지화사업과 연계 시 시너지효과 기대</li> <li>○ 지역입지에 따른 랜드마크로 작용과 브랜드 가치 향상 기대</li> <li>○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부합 및 운영비 절감(도/태안군 공동부담)</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 운영으로 기념관의 상징성 훼손 및 他 지역 유류피해 지역민들의 소외감, 배타성 우려</li> <li>○ 지리적 여건으로 전문 우수인력(학예연구사) 충원 애로</li> <li>○ 향후 리모델링 등 재정 부담가중 이유로 미온적 관리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 지원 지속 요구</li> </ul> </li> <li>○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저하 우려</li> <li>○ 접근성의 한계와 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용 증가 우려</li> </ul>

### ③ 道 산하 위탁(시설공단, 법인화 등)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예산 권한을 통한 간접 운영 가능</li> <li>○道 직영시 우려되는 기구정원 증원 등의 어려움 해소</li> <li>○시설공단 등 자체인력의 탄력적 운영 가능</li> <li>○신속한 의사결정 가능</li> <li>○공기업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향상 기대</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업체를 관리하는 별도 조직 및 법인 등 설립에 따른 인력 추가 관리비용 발생</li> <li>○기념관 운영의 전문성, 경험부족으로 유연성 결여</li> <li>○이질적 조직문화 차이로 인한 자치단체와의 마찰 우려</li> <li>○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2항 경상경비의 50% 이상 경상수익 충당하여야 위탁 가능 (시설공단 등 위탁 가능성 불투명)</li> <li>○인건비, 경비, 유지보수비, 홍보비 등 운영비 외 이윤보장 등 예산 과다 소요</li> </ul>

#### ④ 민간 전문기관 위탁(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전문기관의 영업 네트워크 활용으로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시행용이</li> <li>○전문성 등 운영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방지 및 조기 정착용이</li> <li>○신속한 의사결정 시행용이</li> <li>○사회적 다양성 수용에 따른 변화요인 적응력 향상</li> <li>○피해주민 스스로 운영관리함에 따른 책임성과 주인의식 기대</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탁기관의 브랜드 및 인지도가 낮을 경우 조기 활성화 어려움 예상</li> <li>○위탁사업의 이윤추구로 질 저하 우려</li> <li>○수익발생 시설이 없어 선호도 저하(例 : 수족관 등)</li> <li>○인건비, 경비, 유지보수비, 홍보비 등 운영비 외 이윤보장 등 예산 과다 소요</li> <li>○이질적 조직문화 차이로 인한 자치단체와의 마찰 우려</li> <li>○민간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상 운영관리에 반발 가능성 있음</li> </ul>

위의 각 운영방법 주체별 비교에서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는 직접관리 방식과 민간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간접관리 방식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직접관리 방식은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안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행정지원 장점이 있으나, 기관운영의 융통성이 부족한 단점이 거론된다. 이에 비해 간접관리 방식은 특수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

합 등이 운영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와 효율성, 운영의 자금인력 면에서 민간협력이 가능하나 재정확보의 난점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뒷받침 된다면 운영재원 확보에 큰 무리가 없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5.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1) 수장품 보존센터 건립

기념관내의 오염방제 작업 진행과정에서 수집된 작업장비, 도구, 작업복, 기록물, 영상물, 해양생물표본 등은 국립중앙과학관 등에 약 7,000여점이 보관되고 있으나, 전시내용물의 순환 교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수장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시자료의 확보 상황은 사고관련 동영상자료 100본, 방제관련 작업도구 160점, 해양오염 원인물 10점, 미소해양생물표본 1000점, 해양생물 액침표본 4500점, 어류표본 박제 90점, 조류와 포유류 박제 60점, 자원봉사자의 방제활동관련자료 1000점 등이 있다. 전시물에 대한 교체주기 관련 유네스코의 권고 기준은 2년 주기로 전체의 1/5 정도 리뉴얼 시행을 반영하도록 하여 방문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체 순환주기를 반영한다면 필요 시 전시물의 교체와 기록에 대한 보존, 표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점에서 수장품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보완설치가 요구된다.

### 2)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기념관의 운영 관련 시설물 관리 이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고양시키려면 현재의 소극적 관람 개념에서 발전하여 적극적 교육과 실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과 사회교육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전시 외에 해양재난안전 영화 상영, 퍼포먼스 아트, 공연 및 강연 등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해볼 수 있는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부 프로그램에는 박물관 아카데미 운영, 사이버 연수 실시 등과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련 기념관 및 박물관 관련 답사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국내외 미술관, 미술전시회 순회 프로그램, 야간경관 도보 트레일, 미술관 자전거 순례 등 프로그램 개발 등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념관 주변 만리포해수욕장의 4계절 연계 페스티벌 개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4-6〉 시민참여 추진 프로그램

주 제	시 기	주요 내용
‘바다환경의 달’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초·중·고생 등 청소년을 위한 행사</li> <li>- 환경교육 사생대회, 사진대회 등 환경보전행사</li> <li>* 바다의 날(5.31)과 연계</li> </ul>
‘유류피해 극복 기념의 달’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피해 사고와 극복과정 기념</li> <li>- 기념행사, 해양환경 관련 국내외 세미나, 워크숍</li> <li>-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연계 등</li> <li>*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일(9. 15)과 연계</li> </ul>
‘지역주민의 달’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피해를 입었던 지역주민 및 단체 위로행사</li> <li>- 지역민 축제마당, 특산물 먹거리 행사 등</li> <li>* 지역 축제행사와 연계(태안 빛 축제 등)</li> </ul>
‘자원봉사자의 달’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피해 극복에 참여했던 봉사자, 단체 초청행사</li> <li>- 환경지킴이상, 봉사상 등 시상, 봉사단 출범</li> <li>- 태안환경상 제정(환황해권 글로벌화 전략 시행)</li> <li>*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5)과 연계</li> </ul>



### 3) 해양안전체험관 역할 강화

우리나라의 해양재난사고 관련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기관이 부족하므로 기념관 방문객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내용은 유류유출사고, 유해물질 수송, 선박 충돌 및 침몰 등 긴급사고 대응 등을 포함한다.

### 4) 자원봉사교육관 역할 강화

기념관은 우리나라의 해양재난사고 시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 상징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이를 기려서 자원봉사 전국대회 관련 행사의 거점 역할 및 주요 교육과 체험을 담당하는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국내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009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거나 정체되는데, 자원봉사 참여자 중 정기봉사와 전문봉사자의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양적 확대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전문영역에서의 참여율 확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념관의 기능 중 자원봉사교육관의 역할은 단순 봉사의 시간과 물량을 늘리기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관련하여 시민주도적, 전문적, 창의적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한다.

## 6. 주민중심 기념관 정립

### 1) 지역주민 운영 참여

기념관의 운영 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은 결국 지역주민 스스로 이 기념관이 우리 것이라는 주체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3자가 보듯 관심이 없다면 기념관의 운영자체에 무관심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려면 운영인력의 구성 시 지역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비롯한 실무인력을 지역주민으로 구

성하여 자발성, 주체성, 책임성을 키우도록 한다.

## 2) 지역발전 기금 확보

기념관의 운영 관련 사회기부금 수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받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 기금 성격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제1조(목적)에서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조(권한의 위임)에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부금품모집금지 관련 개별법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과학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국립생태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따라서 기념관도 이러한 조항을 참고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기금 모금 운영 조항을 인정받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허베이특별법에 별도의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 3) 시설 리모델링 참여

기념관의 운영은 일정한 주기로 시설의 보수와 단장이 요구되는데, 지역의 자원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능하다면 입찰관련 제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타 권역 중복 방지 및 연계시설 분야 특화된 실증, 인증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시설관리 관련 발주사업 및 부대사업(시설임대 등)의 수익성 향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화된 리모델링 역할 수행 제시로 지역주민 및 지역 내의 산·학·연·관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지역경제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

## 제5장 결론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도정 수행의 핵심 지표로 인식하고 이에 준거하여 구체적인 행정 실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이러한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의 이행 차원에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 설정 등 국별 전략, 이행 및 모니터링체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SDGs이행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초 하에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남도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를 해양수산국 실무부서의 업무 도정성과 항목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등을 통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정신을 보전하고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2017년 9월 개관함에 따라 기념관이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관련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비전, 목표, 전략 수립 관련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환황해권 거점 중심지로서 충청남도의 행정목표 달성에서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목표 정립
- 둘째, 기념관의 중장기적 발전상과 미래상 제시
- 셋째, 기념관 운영을 위한 비전 제시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극복기념관을 설립하기 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지역종합계획으로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과 시설계획으로서 기념관 건립계획이 허베이 특별법(2008. 3 제정)에 근거하여 지역종합대응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연구센터의 기능을 연구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및 복원연구, 해안오염 방제기술 및 장비 개발,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개발연구, 해안오염 방제인력 양성, 해안오염방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였다. 유류오염사고 관련 전시관 건립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충청남도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일치, 유류사고 관련 종합방재 체험관의 전시 학습효과 증진, 전시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이며 이상으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적시하여 기념관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기념관의 비전은 내외 환경변화와 시대상황,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문화정책과의 관계 하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비전은 2017년 9월 개관에 따라 운영체계가 정립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기념관으로 발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책무를 다하며,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의 거점센터로 자리매김하여, 자원봉사 교육훈련의 사회적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확산되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기념관의 미션을 구체화하는 전략목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도달해야 할 상위 비전과 미션에 입각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하위 세부 프로그램 목표라 할 수 있다. 기념관이 설립된 이후 지역에서 바른 위상으로 자리매김하여 뿌리내리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기념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해양환경안전 및 자원봉사 활동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 운영인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념관 조직은 시설운영팀, 해양환경안전팀, 자원봉사교육팀 등 세 팀으로 나눈다. 단계별 운영관리 로드맵의 준비를 위하여 기념관 운영체계는 2017년 9월 개관 이후 2019년까지 정착기, 2021까지 도약기, 2022년부터 안정기로 나누어 조직체계, 인력구성, 업무영역 확정, 운영재정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립한다.

1단계 정착기(2017. 9 ~ 2019. 12) 동안에는 기념관 건립 운영T/F팀을 중심으로 행정공무원 및 학예사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의 틀 구조를 갖추어나가는 단계로 총인원은 기존 3인 외에 학예사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체계와 함께 유류유출 해양재난 전문기념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나가는 단계이다. 이 기간에는 건립 과정 제기된 전시물의 내용, 동선결정, 방문객의 선호도평가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의사반영이 가능하도록 운영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매체와 구전 홍보를 추진한다.

2단계 정착기(2020. 1 ~ 2021. 12) 동안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줄여나가면서 태안군이나 지역 피해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단체, 가칭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전문기관에서 운영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속의 전문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정책관리 중심의 운영팀과 전시교육팀 중심으로 운영하되 내용적으로는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을 다룬다.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해설사의 해설과 교육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조직체계도 관장(4급 일반직 상당), 팀장(5급 일반직 또는 가급 전문경력직의 학예연구관)을 둔다. 총 인원은 9명으로 하고 점차 해양환경안전과 자원봉사 교육으로의 특화발전을 위해 재정확보 여건에 따라 시설운영, 해양환경안전, 자원봉사교육 등의 세 팀으로 정립해 나간다.

3단계 안정기 (2022. 1 ~ )에는 그 동안의 운영 시행착오에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유류유출사고 전문기념관으로의 성공모델 구축과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특화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한다. 2단계 정착기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직영 체계에서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의 반관반민 체계를 지나 항구적인 민간운영으로 나가도록 한다. 전체 운영요원의 조직인력은 세 팀에 대해 최대 12인 수준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시민주권 시대에 맞게 은퇴자나 자원활동가의 역량과 사회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지해 나간다. 이 기간에는 충남도의 행정 및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뿌리내린 민간 전문기념관이 되어 선진사례처럼 설립취지를 살린 지역 자원봉사자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민참여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영 주체별로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는 직접관리 방식과 민간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간접관리 방식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직접관리 방식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안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행정지원 장점이 있으나, 기관운영의 융통성이 부족한 단점이 거론된다. 이에 비해 간접관리 방식은 특수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운영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와 효율성, 운영의 자금인력 면에서 민간협력이 가능하나 재정확보의 난점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뒷받침 된다면 운영재원 확보에 큰 무리가 없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참 고 문 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2013.  
국토해양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010.  
국토해양부, 유류피해극복기념관(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12.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 통보」, 2013.  
명형남,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타당성 분석, 충남연구원, 2017.  
베텔스만, SDSN과 한국의 초기 상황평가. 베텔스만재단, 2016.  
신경희 외,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2017.  
이인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 만족도 설문조사지 통계작성, 2018.  
임형빈, (가칭)전국 자원봉사교육관 건립방안 검토 연구, 충남연구원, 2017.  
충청남도, 서해 해양환경연구센터(가칭)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2010.  
태안군, 전국 자원봉사교육관 건립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2018.

발데즈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valdezmuseum.org>

프랫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prattmuseum.org>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EASY project

<https://ec.europa.eu/intelligent/projects/en/projects/easy>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의견조사

본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답변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  
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내용은 통계분석과 연구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관 :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 문 의 처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박창순(☎041-635-2984)

## I.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_____ 세	
3	귀하의 현 거주지는?	_____ 시/도 _____ 시/군	
4	귀하의 직업은?		
① 농림축수산업    ② 자영업    ③ 사무직    ④ 생산기술직    ⑤ 판매서비스직 ⑥ 전문직(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교사 등)    ⑦ 주부    ⑧ 학생    ⑨ 기타( )			

## II. 기념관 방문성향

※ 아래의 물음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물음에 따라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상황을 나타내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거나 빈칸에 기입해주세요.

5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u>횟수</u> 는 총 몇 번입니까?	총 _____ 회
6	이번 기념관의 <u>방문목적</u> 은 무엇입니까? (해당항목 모두 응답)	총 _____ 곳
① 여행/휴양/휴식    ② 축제 등 행사 참여    ③ 레저/스포츠 활동    ④ 사업/비즈니스 ⑤ 농산촌체험    ⑥ 산악 및 등산    ⑦ 종교/순례활동    ⑧ 학습/체험활동 ⑨ 기타 ( )		





## Ⅳ. 기념관의 개선 및 발전방향

12	기념관 <u>편의시설 및 서비스</u>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해당항목 모두 응답)	
	① 교통연계편 및 주차장 확충   ② 휴식 및 매점(특산물판매) 편의시설 확충 ③ 안내시설 확충 및 전문해설사 운영   ④ 세미나실과 회의실 확충 및 운영 ⑤ 야외공간 및 옥상의 다양한 시설공간 조성   ⑥ 기타 (                      )	
13	기념관 <u>전시 및 관람공간</u>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해당항목 모두 응답)	
	① 전시관람공간의 새로운 콘텐츠 교체   ② 전시실의 다크투어리즘 스토리 추가 ③ 자원봉사자들 전시공간 및 기획전 개최   ④ 태안주민 전시공간 및 기획전 개최 ⑤ 복도 및 유희공간의 방문객 참여전시 활용   ⑥ 기타 (                      )	
14	기념관 <u>체험 및 학습프로그램</u>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해당항목 모두 응답)	
	① 신규 VR&AR체험프로그램 발굴   ② 123자원봉사자 회상체험프로그램 발굴운영 ③ 주변 연계 생태 및 갯벌체험프로그램 운영   ④ 체험학습형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⑤ 예약형 해설프로그램 운영   ⑥ 기타 (                      )	
15	기타 <u>의견사항</u> 은 무엇입니까?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정종관 / 환경생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전략연구 2018-00 ·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글쓴이 · 정종관

발행자 · 윤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8년 12월 31일 / 발행 · 2018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19(기획조정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미가입

<http://www.cni.re.kr>

© 2018.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